

홍명보號, 16강 신의 한수는 '베이스캠프'

조별리그 경기장 3곳의 정중앙에 위치

비행기로 2~3시간 거리 FIFA서 전세계 제공
따뜻한 곳→추운 곳 이동, 컨디션 유지 큰 도움

“장거리 이동? 전용기면 오케이!”
홍명보호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선택한 베이스캠프가 ‘신(神)의 한 수’가 될 전망이다.
조추첨 결과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게 될 경기장이 모두 베이스캠프에서 비행기로 2~3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한국시간 6월 18일)가 치러질 쿠이아바의 관타나우 아래까지 거리가 1100km로 가장 멀지만 비행기로 3시간 이내”라며 “나머지 포르투 알레그리의 베이라리우 스타디움(6월 23일 알제리전)과 상파울루의 코린치아스 스타디움(6월

27일 벨기에전)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별리그는 3경기는 모두 베이스캠프에서 머물면서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라며 “국제 축구연맹(FIFA)에서 각 팀에 전세기를 제공해 이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직원을 브라질로 파견해 FIFA가 추천한 50군데 베이스캠프 후보지 가운데 5~6곳을 먼저 돌아왔고, 10월에는 추가로 15군데의 후보지가 나오면서 2차 답사를 마쳤다.

후보지를 1~3군데로 압축한 축구협회는 마침내 브라질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포

즈도 이구아수시의 바번 이구아수 호텔을 베이스캠프로 결정했다. 이구아수 폭포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베이스캠프는 공항이 가깝고 훈련장도 차량으로 6분밖에 걸리지 않아 이동에 최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실시된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에서 한국은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함께 H조에 묶였고, 경기장도 베이스캠프를 정중앙에 두고 삼각형 형태로 분포되는 행운을 얻었다.

전용기를 사용해 경기장 이동이 용이한 만큼 홍명보호는 베이스캠프에서 머물면서 경기일에 맞춰 경기장을 왕복하는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치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경기 이틀 전에 경기

장으로 이동해 지정 호텔과 훈련장에서 팀 금질을 펼치고, 경기를 마친 뒤 베이스캠프로 돌아오게 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이동하는 게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 좋다. 추운 곳에 있다가 더운 곳으로 이동하면 선수들이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상대에 대한 전력분석을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조별리그 상대인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의 조직적 플레이와 개별 선수들의 특색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 첫 승 신고

KLPGA 개막전서 데뷔 우승컵

세계 여자골프계의 ‘블루칩’ 리디아 고(16)가 프로 전향 이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10월 프로를 선언한 리디아 고는 지난 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4시즌 개막전 스윙잉스카츠 월드레이디스 마스터스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타를 줄였다.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친 리디아 고는 2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을 3타차로 제치고 프로를 선언한 지 2개월도 안돼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5만 달러(약 1억5000만원). 지난해 9월 KLPGA 한화금융클래식 이후 1년 3개월 만에 우승을 노린 유소연은 줄곧 경기를 주도하다 14번홀(파3)에서 나온 더블보기를 만회하지 못하고 준우승(8언더파 208타)에 머물렀다.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는 아마추어 신분이던 2012년 1월 호주 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우승, 세계 골프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2년과 올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여자오픈을 2년 연속 제패, 올해 2월 뉴질랜드 여자오픈 우승 등 아마추어 선수로 프로대회에서 4승을 올린 뒤 프로를 선언하고 11월 LPGA 투어 최종전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 대회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졌다.

리디아 고는 “긴장을 많이 해서 18번홀 퍼트를 하고 나서도 우승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트로피를 받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LPGA 정식 멤버로 출전하는 리디아 고는 “올해는 20개가 안 되는 대회를 뛰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대회를 참가해야 한다”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기면서 경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냥은 못 보내”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김진이가 8일(이하 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피오니르 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세계선수권대회 네덜란드와의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네덜란드 코넬라 니케 그루트의 슈팅을 저지하고 있다. 한국은 김진이(7골)와 권한나(6골)의 활약에 힘입어 네덜란드를 29-26으로 꺾었다. /연합뉴스

“K리그 미래를 찾아라”

신인 선발 드래프트 오늘 서울 축구회관

2014년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가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K리그 클래식(1부) 구단이 1순위 지명을 한 뒤 챌린지(2부) 구단이 2순위로 새 얼굴을 선택한다. 3순위 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이 이루어진다.

K리그를 꿈꾸는 505명의 선수가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드래프트에서부터 점진적인 자유선발제가 도입되면서 각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2명)을 혼용 적용해 선발할 수 있다.

신인선수 기본계약액(세금포함)은 자유선발 선수 및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600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000만원~3600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의 추가) 지명 선수는 계약금이 없고 기본급은 지명 순위별로 2000만원~5000만원이다. 이밖에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5000만 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각 구단들은 이번 드래프트에 앞서 지난 11월 자유선발과 우선 지명으로 1차 선수를 뽑았다.

광주는 자유선발로 아주대 미드필더 권수현(22)을 낙점했다. 또 K리그 산하 유소년 클럽을 대상으로 한 우선 지명으로 김호근을 앞두고 있는 신재희(전주대), 이상혁(광주대), 이평강(연세대), 장성현(원광대), 명대훈(건국대), 이용준(동강대), 김익희(조선대), 박수영(남부대), 김대웅(명지대) 등 9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한 뒤 광주에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된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최고 1억5000만 원이다.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우선지명을 받지 못한 유소년 클럽 선수는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12일에는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은 선수를 포함해 우선지명, 자유선발 선수 등 2014년도 K리그 신인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14 K리그 신인 선수 교육'이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FC, 명문도약 길을 찾다

12일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광주 FC가 명문구단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문가·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광주 FC가 12일 오후 4시 광주 월드컵경기장 프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FC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축구이상의 감동과 가치 All In 광주FC(가칭)’을 주제로 열리며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비전설정 및 주요 추진전략,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등 앞선 워크숍을 통해 논의됐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광주는 광주시, 시체육회, 축구협회, 축구연맹회 관계자 등 전문가와 지역민, 서포터즈 등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 박해구 단장은 “창단 3년차의 광주가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 축구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를 응원하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중간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2013년 송년 디너쇼





남진

프로그램

- 18:30 입장
- 19:00 식사
- 20:00 공연
- 21:30 퇴장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

